

박완서의 문학작품을 통해 본 서울 주거공간의 이분법적 시각

Dichotomous View on Seoul Residential Areas presented in Park, Wan-So's Literary Works

박철수*
Park. Cheol-Soo

Abstract

The exploration of the spatial structure of a particular urban area, or the analysis of the tendencies of spatial consumption among urbanites, can be a literary-geographical attitude, shifting literary interests toward geography. It may also constitute a field of cultural geography that reads texts as cultural symbols. Based on this kind of attitude, the paper reads the literature of Park Wan So, particularly the popular novels that involve urban and residential spaces of Seoul, as a cultural text that carries a kind of symbolism. It proceeds with the idea that most popular novels reflect the mass phenomena of its times, and that representing real cultural experiences through text, it becomes a means of generalizing the identity shared by the anonymous mass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particular places. Hence the individuality of Park Wan So, who moved to Seoul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hence forth lived as a middle-class citizen, is inseparable from her literary work. With this attitude and methodology, the paper argues that in the urban space of metropolitan Seoul, the modern ambivalent gaze of the colonial period shifted toward increasingly new value systems, and was replaced by a dichotomous view, and furthermore, that the contents of this dichotomous view has experienced a multivalent transformation through the accumulation of time and the expansion of space.

Keywords : Seoul, Residential Area, Ambivalence, Dichotomous View, Literary Works

주요어 : 서울, 주거공간, 양가성(兩價性), 이분법적 시각, 문학작품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대중소설이 문화적 환경을 읽어낼 수 있는 문화 텍스트라는 점에는 대개가 공감한다. 이는 역으로 당대의 문화적 성과물과 실천행위들을 만들고 소비하는 대중들이 공유하는 행동과 이데올로기의 유형을 대중소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에서 문학작품과 공간지리를 엮어 새로운 인문학의 대안을 찾으려는 시도들이 문학지리학 혹은 문화지리학이라는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광고와 영화 혹은 신문기사 등을 통해 특정한 시대의 유행과 담론 혹은 지배 이데올로기를 읽는 일은 학제간 연구의 보편적인 방법이 되었다¹⁾.

이 논문은 이같은 입장과 연구태도에 기반하여 작가 박완서의 문학작품과 작가의 실제적 거주이동 상황을 중

첩하여 서울이라는 거대도시의 대중적 공간환경 인식을 이분법적 시각으로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물론 분석의 대상이 되는 소설이 문학적 과장이나 왜곡 등 특별한 작위적 태도를 취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논문 역시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분석대상으로 설정한 작품들을 가급적 작가의 성장소설이나 자전소설에 한정함으로써 한계를 보완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은 서울의 주거공간이 근대의 충격을 수용할 때 어떤 양상으로 대중에게 각인되었으며, 이후 역동적인 산업사회를 관통하면서 사람들에게는 그 양상

1) '김태준 편저(2005.6), 문학지리·한국인의 심상공간, 논형'은 문학지리학의 지평을 개척한다는 취지에서 문화지리학적인 입장을 보인 새로운 시도의 성과물이며, 이 논문의 주된 대상지역인 서울을 중심으로 기존의 거대담론 중심적 사고가 아닌 일상의 현상을 통해 도시구조의 의미와 상징에 주목하고자 했던 '강수미 외(2003.1), 서울생활의 발견, 현실문화연구'와 서울학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시도하고 있는 '서울학 중심의 지역연구'(청량리, 종로, 남촌, 정계천, 서울의 거대소비공간 등) 등은 전공영역이 다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꾸준한 성과물을 내보이고 있는 사회과학 및 인문학 분야의 지속적인 근대기획 관련 문헌들로서 이같은 경향을 잘 드러내는 대표적인 예이다.

*정회원(주저자),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조교수, 공학박사

※표기방법 가운데 <>속은 소설집이나 수필집 등에 실린 개별 작품이며, []로 묶은 것은 소설집이나 수필집의 제목을 지칭하는 것이다. 정기간행물은 「」 속에 넣어 표기하였다.

이 어떻게 수용되고 변모하였는가를 문학작품을 통해 밝힘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근대의 도시공간 변모과정이 공간사용자로서의 시민들에게는 어떤 심상을 가지도록 하였는가를 추적하는 것이다.

2. 연구의 방법 및 대상

연구방법은 근대도시의 공간변화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추동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도회인은 공간을 점유, 사용하는 주체로 타자화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문화기호학적 입장을 취했다²⁾. 즉, 박완서의 문학작품에 묘사되고 있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작품의 서사구조와는 별개의 해석태도를 취함으로써 기존의 문학비평이나 작품해설과는 다른 방법을 택하고 있다. 텍스트를 기호나 상징으로 이해한다는 점은 곧 다양한 장르의 문학작품이 당대 대중문화의 보편적 일상성을 담고 있다는 점을 전제한다.

문학작품의 텍스트 분석과 함께 작가가 실제로 어떠한 거주이동 경로를 택하였는가는 허구를 전제하는 소설작품의 보편적 사실(facts)로 덧붙임으로써 문학작품에 내재되어 있는 허구의 한계를 실제로 규명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작품의 유형과 장르를 작가 스스로(혹은 출판사의 강권에 의해³⁾) 자전적 소설이나 성장소설 그리고 실제의 일상을 내보인 수필이나 산문 등을 보완하여 활용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크게 둘로 나뉜다. 연구의 공간지리적 대상은 서울이라는 영역으로 한정하며, 구체적인 텍스트의 분석대상은 박완서의 문학작품 가운데 소설형식을 띤 것을 중심으로 하지만 산문이나 수필과 같은 실제 생활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들을 포함하였으며, 작가의 개인적 체험이 보편적 대중의 그것과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다른 작가의 작품을 일부 살펴보았다.

II. 연구대상으로서 박완서의 문학작품이 갖는 가치

1. 공간과 장소의 사실에 대한 재현 가치

1970년 등단 이후 1988년에 처음 펴낸 수필집에서 이 르기를 ‘내 창작열을 견잡을 수 없는 열정으로 점화시키는 것은 기억인가? 현실인가? 아마 둘 다일 것이다. 아니면 둘이 만나 서로 간섭하고 갈등하고 마찰할 때일 것이다.’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토요일의 문학이야기’라는 이름의 대중강연회에서도 ‘작가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보통여자로서 보통시민으로서의 삶과 경험은 피내어

도 피내어도 마르지 않는 샘물 노릇을 했다.’⁵⁾고 밝힌 바 있다. 작가 스스로 자신의 창작에 밑거름이 된 것은 결국 자신의 삶에 기반한 생활의 경험이라는 것이다⁶⁾. 이는 작가가 관통한 시대(일제강점기 이후 현재)를 거의 그대로 기술한 것이 곧 자신의 문학작품이라는 의미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내 작품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기억들을 생으로 내보인 것들이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와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두 편이다. 독자 앞에 이게 다라고 몽땅 드러내 보임으로써 더 이상은 울 귀머지 못하게 되길 스스로에게 바라고 있다.’⁷⁾고 했던 점 역시 작가의 글쓰기에 대한 기억 의존적 태도와 실제 경험적 사실에 입각한 묘사를 대중들로 하여금 객관적 사실로 인정하도록 하는 중요한 동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평자들의 입장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박완서 문학은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혹은 일개의 경험적 자아로서 최대치의 감각 기능과 기억 기능을 가지고서 실존적 삶을 살았던 한 역사적 자아의 체험기록이라는 의미에서 그것은 독특한 기록문학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터이다.’⁸⁾라고 언급한 점은 작가의 작품이 리얼리즘계 소설로서 기록적 가치를 획득하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2. 도시 중류가정의 삶의 복원재로서의 가치

작가 박완서는 한국 문단에서 해방 이후 한국 여성소설을 주도한 중요한 인물로 평가되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작품 연구의 대상이 되는 작가이다⁹⁾. 작가는 일제 말기를 소녀 시절에, 6.25 동란을 청춘기에 그리고 70년대의 이른 바 산업화 시대를 중년기에 경험한 작가로서 1931년에 경기도 개풍군 청교면 묵송리 박적골에서 출생한 이후 8살에 모친인 홍기숙(洪己宿) 여사의 손에 끌려 자

5) 2002년 11월 원주의 토지문학관에 열린 강연회를 겸한 간담회에서 작가 박완서는 참석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늦게 등단을 했다고 했는데 저는 40세에 등단을 했습니다. 제가 작가가 되기 전까지 생활은 무의미했느냐 하면 그때도 사실 저는 행복했어요. 어찌면 제가 작가생활을 나이 먹은 후까지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것은 40세까지 제가 보통여자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작가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보통여자로서 보통시민으로서의 삶과 경험은 피내어도 피내어도 마르지 않는 샘물 노릇을 해주었습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6) 앞의 사례 이외에도 비교적 최근의 일인 EBS 스페셜 ‘100인의 증언 : 1970-80년대의 문화를 말한다’에서도 작가는 대답을 통해 같은 취지의 창작태도를 밝힌 바 있다.

7) 박완서, <시골집에서>, 앞의 책, 105-106쪽

8) 한기(한형구, 2005.9), 구텐베르크 수사들-한 기 문학평론집, 도서출판 역락, 188쪽

9) 이정희(2003.11), 오정희·박완서 소설의 두 가지 풍경 ; 한국소설에 나타난 근대와 여성, 청동거울, 245쪽에는 ‘해방 이후 한국 여성소설을 주도해온 작가로 박완서·오정희를 들 수 있다.’고 전제하며, 그 가운데 박완서는 페미니스트 성장소설의 흐름을 주도한 작가로 규정한 바 있다. 이 책에서 기술하고 있는 박완서 문학의 연구사적 검토에 인용된 박완서 문학에 대한 연구논문이나 평론 등은 이미 100여 편이 넘는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2) 문화기호학적 입장에 대해서는 서정철(1998), 기호에서 텍스트로-언어학과 문화기호학의 만남, 민음사 등 참조

3) 작가의 뜻과는 달리 ‘소설로 그린 자화상’이라는 부제가 붙은 박완서의 소설로는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소설로 그린 자화상-유년의 기억(1992)’과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소설로 그린 자화상-성년의 나날들(1995)’ 등 두 편이며, 작가는 이렇게 붙여진 부제에 대해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4) 박완서(2002.5), <시골집에서>, [어른 노릇 사람 노릇], 작가정신, 초판 18쇄, 104쪽

신보다 4년 먼저 서울살이를 하던 오빠와 어머니의 임시 거처인 서울의 현저동으로 편입하여 서울사람이 된 인물이다. 특히 나이 사십에 창작활동을 시작하였다는 점과 등단 당시 이미 1남 4녀를 둔 주부였다는 점은 세인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작가는 성장과정과 그 이후 스스로 중류가정에 속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해방 후 나에게 생긴 엄청난 사건은 갑자기 책이 많아 생긴 거였다. …(중략)… 평소 보고 싶어 하던 일본 유명작가의 단행본은 물론 각국 문호의 전집, 세계문학전집 등이 거리거리에 산적해 어떤 물건 보다고 혈값으로 손님을 불렀다. 마침 내 나는 부자 친구집 서가에서 그림의 떡처럼 침 삼키며 바라보던 세계문학전집을 내 것으로 할 수 있었다. 마침 우리집도 도시빈민층에서 중산층으로 발돋움했을 때라 오빠는 책벌레 동생을 위해 그런 것들을 장만해 주었고 나 스스로 사볼 수도 있었다.’¹⁰⁾는 기억에 의존한 묘사를 보더라도 작가가 한때 자신을 도시빈민층이라고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그 시기는 매우 한정적인 동안의 짧은 시기였고¹¹⁾, 그나마 자신의 고향인 경기도 개풍의 고향 기와집을 언제나 풍요로운 돌아갈 곳으로 자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최소 서울로 편입할 당시를 제외하고는 사실 곤궁한 적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억 의존적이고 사실 중심적인 작가의 작품은 이와 더불어 서울에 편입한 중류가정의 한 개인이 살아온 시간과 공간을 두루 살펴볼 수 있다는 또 다른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는 점에서 중류가정의 가구원 개인의 서울 주거공간 인식과 이동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3. 근현대 서울주거사의 독본적 가치

작가 박완서는 ‘농촌의 삶과 도회의 삶을 두루 경험하

였으며, 전통적인 삶과 근대적인 삶을 넘나든 경험의 소유자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성장환경은 박완서로 하여금 당시의 삶을 보다 보편적이고 포괄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했다고 짐작된다.’¹²⁾는 지적은 작가의 다양한 자전적 소설을 통해 당대 도회인들의 보편적 거주상황을 파악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작가의 대부분의 작품들은 성장소설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거나 혹은 가족사의 일부분이거나 혹은 가족사의 연작으로 보이는데 이 작품들에 나타난 공통된 특징의 하나가 사회적 상황과 역사적 조건에 대해 어느 한 개인과 가족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작가의 작품들은 ‘해방과 분단, 그리고 전쟁의 참화와 전후 복구기라는 우리 현대사의 가장 극적인 체험 시간들을 서울이라는 이 도시공간을 근거지로 하여 통과해 나왔던 한 시대적 자아, 실존적 자아의 행적 기록이라는 의미에서 그것은 우리 현대 문학사의 차원에서도 독특한 가치 내장의 의미를 획득한다고 볼’¹³⁾ 수 있기 때문에 서울 현대의 삶을 투여한 기록집으로서의 의미를 획득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박완서의 문학작품들은 비록 구체적으로 정의하기에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서울주거학 내지는 서울의 공간소비학을 연대기적으로 탐색하기 위한 훌륭한 도구가 된다. 고향을 떠나 서울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문밖 의식이라던가 혹은 근대적 풍경의 생경함을 고향인 박적골의 다른 것으로 대치시키는 시각 등은 작가의 문학적 뼈대를 이루는 것으로서 근대적인 풍경의 스펙터클을 일견할 수 있는 좋은 독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작가의 작품들은 일제 강점기 이후 현재에 이르는 주거사의 단면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가족사와 공간소비와 일반성 추론자료로서의 가치

작가 박완서는 1931년 10월 20일 경기도 개풍군 청교면 묵송리 박적골에서 반남 박씨인 박영노(朴泳魯)와 서울 근교인 고양(高陽) 출신의 홍기숙 사이에서 열 살 위의 오빠를 두고 출생하였다. 박완서의 집안은 개성에 대대로 뿌리를 둔 집안은 아니고 19세기 말 생활이 곤궁해진 선조가 부자인 친척의 배려로 개성으로 이주한 집안이다. 작가가 4살이 되던 1934년 부친인 박영노가 세상을 뜨자 작가의 어머니는 며느리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고 오빠만을 데리고 서울로 편입한다. 따라서 작가는 조부모와 숙부 밑에서 성장하며 8살까지 박적골에 머무른다. 작가의 양육을 책임 맡았던 조부모는 전근대적인 시선과 경험에 기반한 사람들로서 자신들의 큰 아들이자 작가의 아버지가 맹장염에서 복막염으로 전이되어 가사지경에 이르러도 무당집에서 푸닥거리를 해야 한다고 믿는 전근대적 인물이자 역사의식도 희박했던 분들

10) 박완서(2003.5), <내 안의 언어사대주의 옛보기>, [두부], 창작과 비평사, 초판 10쇄, 186-187쪽. 이 글에 의하면 박완서는 이미 10대 중반에 스스로가 중산층으로 여길 정도였으며, 부모님과 형제들 모두를 데리고 개풍의 박적골에서 생활하고자 기와집을 지었던 작가의 아버지가 별안간 세상을 버리기 전까지도 살림이 곤궁하지 않았다는 기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혼자된 작가의 어머니가 중부의 책임을 털어버리고 서울로 편입하던 당시 짧은 동안은 작가 스스로가 밝히고 있듯이 도시빈민층과 같은 곤궁한 생활이었다고 회고한 바 있다.

11) 차종천, 유홍준, 이종환(2004.1), 서울시 계층별 주거지역 분포의 역사적 변천, 백산서당, 59쪽에서 기술된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의) 1947년 통계에 의하면 당시 주택 호당 인구가 12명이었으므로 주택난이 매우 심각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당시 판잣집은 인왕산과 안산 산기슭, 현저동 일대, 홍제동 고개 부근, 청계천변, 남산, 후암동과 한남동 일대, 마산 일대, 답십리 일대 등 조금 폭이 넓은 도로의 옆이나 공지에 흩어져 있었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에 서울에는 토막집이 2,643호, 판잣집이 5,356호였다. 일제 때부터 있던 토막집은 줄어든 대신 판잣집은 늘었다. 1950년도의 자료이긴 하나, 당시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주거지는 신당동, 후암동 외에 돈암·안암·신설동 및 아현·북아현동 등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됐던 지역에 다수 분포했음을 보여준다’고 기술되어 있다. 작가 박완서는 1946년에 이미 돈암동으로 이주하였으며, 6.25전쟁이 끝날 때 삼선교로 이주하였다는 사실은 작가가 인식하고 있는 서울 중산층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12) 이남호(2003.4), “그 때 거기에 있었던 아픔과 아름다움에 대하여”, 작품해설,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서울, 웅진닷컴, 초판 31쇄, 310쪽

13) 한기(한형구), 앞의 책, 188쪽

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일찍 세상을 버린 작가의 아버지 역시 전근대적인 씨족공동체로부터의 일탈을 꿈꾸지 않았던 인물로서 자신의 부모를 고향에 모시고자 동생들과 더불어 살 집을 새로 짓는 인물이지만 작가가 4살이 되던 해에 북막염으로 사망한다. 반면에 작가의 어머니는 경성 인근의 고양 출신으로서 처녀 시절 도회지에 살던 친척들의 입소문과 도움으로 경성의 도시문명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갖춘 장손의 며느리로서 작가의 아버지이자 자신의 남편이 약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절명하자 장손 며느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버리고 아들에 이어 딸까지 데리고 서울로 편입하여 아들과 딸의 근대적 교육을 위해 샅바느질과 남의 집 셋방살이를 감행하는 여성이다.

이 과정에 대한 작품묘사를 통해 작가는 근대에 대한 양가적(兩價的) 반응을 보이게 된다. 이런 점에서 강압적 근대기 혹은 외압적 근대화가 추동되던 한국의 보편적 도회공간과 스펙터클에 대해 작가는 강한 내성을 가지게 되고 이는 작품을 통해 이분법적 시각으로 전이된다는 점에서 개인의 근대화의 경험이 어떻게 공간의 체험과 공간인식으로 전이되는가를 읽어낼 수 있다.

이같은 전제는 ‘역사속의 평범한 개인을 수동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행동하는 존재로 파악하여 그들 인간사회의 관계와 행동양식을 중심에 놓고 파악하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¹⁴⁾’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다. 따라서 작가의 다양한 작품을 통해 주체적인 개인과 그 개인이 속한 가족구성원이 시간의 변화와 따라 어떤 궤적을 그리며 삶을 영위하였는가에 실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이는 곧 미시사적 연구자료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작가 개인의 사실적 생애사를 바탕으로 기록된 자전적 성장사나 가족사는 작가의 작품을 보다 보편적인 미시사의 일종으로 변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발표된 작품분석을 통해 서울이라는 도시의 주거공간 변화에 대한 개인적 체험을 구체화할 수 있다.

즉, 구체적인 개인의 주거공간 회귀와 이동성향이 일반적인 경우로 확장될 수 있는 개연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에서 가히 서울학 연구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 박완서 문학에 드러난 가족사와 개인사는 비록 다수의 표본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성이 높은 추론을 이끌어내는 유의미한 도구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5. 작가의 이주경로에 의한 사실확인 자료로서의 가치¹⁵⁾

개풍군에서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작가가 8살에 경성으로 편입한 최초 정착지는 서대문구 현저동 46번지의 418호 빈민촌이었으며, 이후 작가 나이 10살에는 현저동 산꼭대기에 7자집(일명 괴불마당집)을 마련하게 된다. 이

후 작가의 거처는 해방 이후 개성으로 잠깐 피난한 뒤 다시 서울로 돌아와 살게 된 한강로와 신문로의 적산가옥, 돈암동으로의 이주와 1946년부터 1950년까지 반복된 삼선교와 돈암동 일대에서의 일년에 한 번꼴의 이사를 거쳐 1953년에 삼선교의 큰 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처녀 시절을 마감한다. 그 후 1953년 남편 호영진을 만나 종로구 충신동에서 살림을 차렸다가 딸 넷을 낳은 뒤인 1961년에 충신동에서 신설동(이후 행정구역이 바뀌어 보문동이 됨)으로 이주한다.

그 후 이곳에서 20년간을 거주하면서 등단작품을 포함한 다양한 작품활동을 하였고, 1981년에 20년간 살던 보문동의 한옥을 떠나 최초로 신축 분양한 잠실 주변의 아파트로 이주한다. 그리고 2년 뒤 구리시 아치울 마을의 시골집을 구입하여 전세를 놓은 뒤 1998년에 그동안 전세를 주었던 아치울 마을의 자신 소유의 집으로 거처를 완전히 옮겨 오늘에 이른다.

이러한 작가 개인의 거주지 이동성향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서울 중산층의 공간소비 현상을 실증적으로 설명하는 하나의 궤적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이주경로가 작품을 통해 어떻게 재현되며 현실화될 수 있는가를 분석의 내용으로 보태는 일은 서울의 주거공간 확장 유형의 파악재료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III. 분석대상 작품의 선정과 분석의 틀

1. 사실적 생애와 공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작품선정

박완서의 작품들은 작가 스스로가 ‘독자 앞에 이게 다라고 몽땅 드러내 보인’¹⁶⁾ 작품들이라고 하고는 있지만 작가의 생애사 전체를 관통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소설로 그린 자화상·유년의 기억’이라는 부제가 달린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1992)]¹⁷⁾는 경기도 개풍군 박곡골에서의 출생에서부터 서울로의 편입에 이르는 소녀시절의 얘기를 다룬 것이며, 소설로 그린 자화상·성년의 날들’이라는 부제가 달린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1995)]¹⁸⁾는 1951년 1.4후퇴 이후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성년시절을 주로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작가의 생애사를 전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보조적 방법이 강구될 수밖에 없다. 이같은 관점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들로 1980년에 발표

15) 작가 박완서의 출생과 성장, 이주경로 등은 개인의 내면적 이력과 공간소비 내지는 공간이전의 다양한 궤적들은 서로 다른 형태의 다양한 자전적 소설과 수필 등을 통해 스스로 밝힌 실화에 바탕을 둔 사실(facts)을 재구성한 것으로서 다양한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경우만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16) 박완서, <시골집에서>, 앞의 책, 106쪽

17) 이와 함께 1980년에 『문학사상』 9월호에 발표된 <엄마의 말뚝 1>도 동일한 시간을 대상으로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18) 1978년에 『문학과 지성』 가을호를 통해 발표한 <공황에서 만난 사람>과 1981년 『문학사상』 8월호를 통해 발표한 <엄마의 말뚝 2>와 등도 이와 동일한 서사구조를 가진 작품이다.

14) 홍형욱(2005.6), ‘근대이후 한국주거의 미시사를 보는 다양한 시각’, 학술심포지움-근대 이후의 삶과 주거변화-심포지움논문집, 가톨릭대학교 한국근현대연구팀, 1쪽

한 <엄마의 말뚝 1>과 1992년에 발표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1978년에 발표한 <공항에서 만난 사람>과 1981년 그리고 1995년에 발간한 <엄마의 말뚝 2>와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그리고 1991년과 1993년에 각각 발표한 <엄마의 말뚝 3>과 <꿈꾸는 인큐베이터>, 2002년 여성작가 16인의 신작소설집을 통해 발표한 <아치울 이야기>¹⁹⁾와 『어른 노릇 사람 노릇』과 『두부』 등의 산문집이 포함되어야 한다.²⁰⁾

이 논문에서는 작가의 실제적인 공간이주와 서울사람들의 주거공간 인식과 이동회구 성향 등에 대한 사실적 내용의 분석은 주로 이들 작품에 국한하게 되지만, 박완서라는 작가 개인의 작품분석 내용을 좀 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서울 도회인의 것으로 확장하기 위해 다른 작가의 작품 가운데 일부를 사용하였다.

2. 도시중산층의 서울 주거공간 연구를 위한 분석작품

박완서라는 작가의 개인 생애사에 드러난 사실 의존적인 작품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도시 중류가정의 실제적 삶의 양태와 서울이라는 주거공간의 점유와 연동할 때 상당부분 공극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남편과의 결혼 후 일어난 일련의 생활에 대한 엿보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극을 메우는 방법으로는 작가의 작품 가운데 주거공간의 회구나 이동성향과 연동되면서도 그것이 작가의 생애사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작품을 보완적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다. 즉, 실제로 드러난 작가의 주거공간 회구와 이동의 경로 속에서 발표된 소설과 수필 등의 다양한 작품에 내제된 비판적 시각이나 타협적 태도 등을 살핍으로써 서울이라는 거대 주거공간에 편입된 중류가정 도회인의 공간인식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로 살핀 작품 가운데 작가의 생애사를 드러낸 사실 의존적인 작품과의 중복을 제외한다면, <나의 고향과 문학의 의미>²¹⁾, <내 안의 언어사대주의 엿보기>²²⁾, <옛날>²³⁾ 등의 수필과 함께 <닭은 방들>²⁴⁾, <울음소리>²⁵⁾, <어느 이야기꾼의 수령>²⁶⁾,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²⁷⁾, [서울사람들]²⁸⁾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작품들은 대부분 1970-80년대에 발표된 것들로서 서울의 도시공간 확장과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이전투구와도 같은 도시민들의 잠재적 주거공간 소유와 확장을 위한 욕망의 분출 등이 잘 묘사된 까닭에 경제 제일주의와 배금주의 그리고 속물주의의 사회풍조를 잘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의 도시공간 확대에 따른 주거공간 점유 내지는 이용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작품들이다. 따라서 위선적 도시민의 욕망과 공간 소유욕구 등이 서울이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어떻게 분출되고 그것이 도회인의 보편적 삶의 상징성과 어떻게 연동되는가를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박완서의 작품 가운데 공간의 논제와 주로 연결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박완서를 비롯한 거의 모든 작가의 작품들은 사회적 상황과 역사적 조건에 문학적으로 반응한다고 할 수 있지만 기억 의존적이고 실제생활에 기반한 글쓰기에 주목한 서울의 중류가정 여성인 작가 박완서의 경우는 그 대상이 매우 분명할 뿐만 아니라 서울의 팽창적 도시화과정에서 빚어진 다양한 양태를 연대기적으로 기억하는 작가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다른 작품의 분석과 다소간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다.

IV. 문학작품을 통해 본 서울의 주거공간 인식

작가 박완서의 문학작품에 드러난 주요한 주거공간 이동의 경로는 ① 경기도 개풍의 고갯마루(농바위고개)→② 서울의 사대문 안팎(현저동과 돈암동 안팎)→③ 사대문 안의 신흥주택가→④ 사대문 안의 신흥주택가 주변으로 이동한다²⁹⁾. 그러나 이같은 분석은 작가의 근대체험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제한적으로 설명할 때 유용한 단서가 될 뿐이라는 한계를 가진다. 작가의 문학작품에 드러난 공간의 이동 궤적을 확대하고 도시의 주거공간 점유의식과 연동하여 살피자면, 여기에 덧붙여 ⑤ 사대문 밖 아파트 단지→⑥ 전원주택지가 추가될 수 있다³⁰⁾.

이를 바탕으로 작가가 실제 도시에 편입된 이후 도시의 공간소비라는 차원으로 거주공간의 이동경로를 분석적으로 재정리한다면, ① 개풍군 박곡골에서 서울로의 편입→② 현저동 셋집에서 엄마가 최초의 말뚝을 박았다는 현저동 산꼭대기의 괴불마당집→③ 한강로 적산가옥→④ 광화문 신문로의 새집→⑤ 돈암동 일대에서의 잦은 이사→⑥ 현저동 산꼭대기의 괴불마당집(1.4 후퇴과정에서 미처 남으로 내려가지 못한 상태에서의 피난)→⑦ 돈암동→⑧ 삼선교→⑨ 충신동→⑩ 신설동(행정구역 개편으로 보문동으로 바뀜)→⑪ 잠실의 아파트→⑫ 경기도

19) 2002년에 출판된 이 글이 담긴 소설집의 표제는 [파스타치오 나무 아래서 잠들다]이다.

20) 박완서 에세이로 만들어진 『어른 노릇 사람 노릇』은 1998년 3월 '작가정신'을 통해 최초로 펴낸 바 있으며, 『두부』는 2002년 10월 '창작과 비평사'에서 처음 발행하였다.

21) 박완서, 『어른 노릇 사람 노릇』, 2002.5, 초판 18쇄, 서울, 작가정신, 71-89쪽

22) 박완서, 『두부』, 2003.5, 초판 10쇄,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2-198쪽

23) 박완서, 『두부』, 위의 책, 39-52쪽

24) 1974년 『월간중앙』 6월호 발표

25) 1984년 『문학사상』 2월호 발표

26) 1984년 『분예중앙』 여름호 발표

27) 이 작품은 1989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여성신문』을 통해 연재되었으며, 같은 해 『삼진기획』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28) 이 작품은 1984년 5월부터 12월까지 당시 창간된 『2000년』이라는 잡지에 연재되었으며, '글수레'를 통해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29) 이정희, 앞의 책, 247쪽

30) ⑤와 ⑥을 대표하는 작품으로는 <닭은 방들>과 <서울사람들> 그리고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등을 꼽을 수 있다.

구리시 아천동 아치울 마을로 정리될 수 있다³¹⁾. 이같은 분석은 소설 속의 주요 공간 이동과 작가의 실제 거주지 이동이 상당한 관련성을 갖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된다.

그러므로 기억과 현실이 서로 간섭하고 갈등하고 마찰하는 과정이 곧 작가의 창작열을 부추기는 에너지였다는 점을 재차 긍정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의 이동은 결국 서울이라는 실제적인 주거공간의 지리적 확장이 조희인의 공간 점유나 이용의 다양한 층위로 전이되거나 재현됨으로써 서울의 근대성 기획에 의해 추동된 도회인들의 주거공간 소비로 구체화된다. 특히, 대부분의 근대체험이나 근대기획이 동경과 비난 내지는 충돌이라는 양가적 속성을 가졌다는 점에서 박완서의 작품은 다음의 분석과 같은 이분법적 시각으로 도시공간의 점유와 소유, 이동과 사용 등을 포착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문안 의식과 문밖 의식

박완서의 작품에 반복되는 ‘문안과 문밖의 대립의식’은 서울의 도시공간 확장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은 오래 전부터 서울의 중주성(宗主性, primacy)과 성곽도시인 서울의 공간환경적 특성을 명료하게 하는 도구가 되어 왔으며³²⁾, 서울의 근대기 모습을 다룬 다양한 문학작품에 자주 언급된다. 문안은 문밖에 비해 모든 면에서 상대적으로 나은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문안에 대해서는 의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여기가 서울이야?” 나의 항의 섞인 물음에 엄마는 뜻밖에도 아니라고 대답했다. “여기는 서울의 문 밖이란 다. 나이 오래비가 이담에 취직해서 돈 많이 벌면 우리도 그때 가선 버젓이 문 안에서 살아보자꾸나.”³³⁾ ...

... “감옥소가 있는 문 밖 동네에서 문 안 동네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길을 한층 절절해졌다. 그 절절한 소망은 불시에 나를 소학교 보내는 일에 큰 변경을 가져오고 말았다. 엄마는 그 동네 아이들이 다 가게 돼 있는 무악재고개 너

머에 있는 학교를 갑자기 타박하면서 나를 꼭 문 안에 있는 국민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우기기 시작했다. 국민학교도 시험쳐야 들어가는 시절이었지만, 학구제라는 게 있어서 함부로 타동네 학교를 지원하는 건 금지돼 있었다.”³⁴⁾ ...

... “그 애 집은 누상동이었다. 문 안에도 그런 집이 있다는 게 놀라웠다. 초가집 추녀가 어찌난 낮게 땅으로 드리웠는지 문자 그대로 기어들어가고 기어 나오게 생긴 집이었다. 평지라 수돗물이 나오는 것만 빼면 우리 집보다 훨씬 못했다. 삼남매에다 부모님 할머니까지 여섯 식구가 코딱지만한 방 두 칸에서 기거한다는 것도 안 돼 보였다. 게다가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은 온종일 침을 흘리며 외마디를 지르는 박약이었고, 엄마는 핫김에 그렇게 됐는지 시어머니 앞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즐담배를 피우고 있었다.”³⁵⁾ ...

... “그 후부터도 여러 사람 중에서도 식구는 눈에 띄듯이, 평범하게 생긴 그이가 다른 사람하고는 어딘지 달라 보였다. 말로는 잘 설명되어질 수 없는 그런 차이를, 나는 문 밖 사람과 문 안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나보다 영어를 더 못했지만 문 안 사람이 영어 못하는 것처럼 듣기 싫지가 않았다. 문 안 사람은 못 하는 영어도 기를 쓰고 잘 하려고 혀를 굴리고 말고 법석을 떠는데, 그이는 나도 할 줄 아는 ‘워터’를 ‘워러’라고 하는 정도로 혀를 못 굴렸다. 게다가 일본식 발음도 고치지를 못해 호텔은 호테루고, 그릴은 그리루였다.”³⁶⁾ ...

... “별로 신명도 안 나는 문 안 학교 가는 일을 위해 치려야 할 곤욕은 의외로 많았다. 엄마는 입학 시험날 입을 내 옷에 뜻밖에 과용을 하고 있었고 주소를 빌려준 친척대한테 몸에 익지 않은 아부를 하기도 아니꼽고 힘든 일인 것 같았다. 그러나 나의 곤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기류계를 옮긴 날부터 친척대 주소를 외워야 했는데 그렇다고 정작 살고 있는 주소를 잊어 버려도 되는 건 아니었다. 길 잃었을 때에는 정작 주소를 대야 하고 입학시험 칠 때나 학교 들어가고 나서 선생님한테 말씀드릴 일이 있을 때는 가짜 주소를 대야 한다는 일은 나에게 적잖이 심리적 부담이 되었다.”³⁷⁾ ...

문밖에 대한 우월적 대상으로서의 문안 의식은 딱히 박완서의 작품에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이라는 공간적 한정 속에서는 문안이 상대적으로 나은 공간환경으로 치부되곤 하지만 서울이 아닌 지방의 경우에는 결국 서울과 지방이라는 대립적 의미로 환유되고, 지방에서도 그 곳의 가운데를 점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공간의 구획이 극명하게 대비되기 때문이다. 이때는 ‘중앙’이라는 용어와 그 용어의 상징적 의미가 서울의 ‘문안’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 통례이다.

31) 작가 박완서의 실제적인 거주지 이동경로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구득한 다양한 형태의 작가연보와 작품 등에 드러난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였다.

32) 《동국여지승람》에는 “서울은 북으로 화산(華山)을 진산(鎭山)으로 삼아, 동과 서는 용이 서리고 범이 쭈그리고 앉은 형세이고, 남쪽은 한강으로써 요해처(要害處)를 삼았다”고 했다. 권근의 <상대별곡>에 “화산남 한수북 천년 승지”라는 구절은 바로 이를 말한 것이다. 화산은 북한산(북악)을 가리킨다. 서울의 동쪽의 낙타산, 서쪽의 인왕산, 남쪽의 목격산, 북쪽의 백악산 성밖의 일부 지역도 관찰했지만 원칙적으로 성안의 구역만을 한양이라 했다.”는 점에서 서울의 공간환경적 특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문안(성안)과 문밖으로 구분된 것으로 보인다. 김태준 편저(2005.8), 문학지리·한국인의 심상공간-상-국내편 I, 논형,, 초판 1쇄, 30쪽

33) 박완서(2001.3),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웅진닷컴, 재판 15쇄, 49쪽

34) 박완서(1987.5), <엄마의 말뚝 1>, [그 가을의 사흘 동안], 나남출판, 20쇄, 166쪽

35)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앞의 책, 132-133쪽

36) 박완서(2003.4),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웅진닷컴, 초판 31쇄, 290쪽

37) 박완서, <엄마의 말뚝 1>, 앞의 책, 167쪽

... “중앙동, 중앙시장, 중앙약국, 중앙극장 …… 거긴 뭐든지 이마뺨에 ‘중앙’이 붙어야 장사가 됐다. 속초에서의 내 별명도 ‘중앙동 깡패’였다. …<중략>… 서울의 주변만 맴돌던 애가 그야말로 중앙으로 진입해, 속초의 중앙시장 한복판에서 서울에서도 맛보지 못했던 도시의 향락을 만끽했다. 약국 맞은편, 열 걸음도 안 되는 곳에 극장이 있었다. 중앙극장은 나의 아지트였다. 아침 일찍 영화관에 들어가 마지막 회가 끝날 때까지 나오지 않았다.”³⁸⁾ …

2. 도회편입자의 이중적 시각에 의한 문안 의식의 변용

문밖에 대한 상대적 우월감의 상징인 문안의식은 작품 속 인물의 귀향과정을 통해 다른 가치로 변용된다. 박완서의 자전적 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국민학교 시절의 귀향 풍경 묘사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즉, 자신이 이루지 못한 신여성에 대한 끝없는 동경의식을 딸에게 전가시킨 작가의 어머니는 방학을 맞아 경기도 개풍의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를 통해 서울살이의 티를 날조하거나 혹은 작중 화자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자신이 도회인으로 편입되었음을 자각하도록 혼육함으로써 상대적인 우월감을 갖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설 속의 화자는 지속적인 혼육에 의해 점차 강요된 중앙의식(문안의식 혹은 서울사람 티내기)을 자신의 새로운 가치로 수용하면서 고향을 타자화 하는 동시에 문밖의 실재를 문안 의식으로 환원시키는 이중적 태도를 취한다.

... “여름 방학이 되었다. 엄마는 나를 위해서 야시장에서 옷감을 끊어다가 화신상회에 가서 예쁜 옷을 골라서 살 것처럼 만져보고, 뒤집어보고 대강 눈대중을 해다가 그대로 만들기 시작했다. 그뿐 아니라 나를 전차를 태워서 서울 장안을 한 바퀴 돌렸고 처음으로 동불원 구경까지 시켜 주었다. 뭔가 한꺼번에 수용하긴 벅하고 고될 만큼 엄마는 나에게 대처라는 걸 대량으로 주입시키려 들었다. 현저동에 살면서 박적골의 근거를 가장 으뜸가는 품성으로 숭배하고 지킬 것을 강요했듯이, 박적골로 돌아가려는 마당에선 대처 티를 무작정 날조하려 들었다.”³⁹⁾ …

... “박적골로 갈 수도 있으리란 생각도 위로가 되지 못했다. 고향집이 어떻게 됐는지, 누가 지키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만일 집이라도 남아 있다면 크게 의지가 되련만 아무리 난리통이라 해도 이런 꼴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금의환향까지는 아니라도 고향이란 하다못해 허세라도 부릴 건더기가 있어야 돌아가고 싶은 법이다. 여덟 살 때 떠나온 후 난리가 날 때까지 한 해도 귀향을 거른 적이 없지만 늘 빠기면서 돌아갔던 곳이다. 엄마는 첫해에는 내리닫이를 해 입혀서, 그 다음 번에는 탈 줄도 모르는 스케이트를 어깨에 걸치게 해서라도 나로 하여금 빠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내리닫이 양장도, 작두날이 달린 구두도 그 동네에선 처음 보는 거였다. 박적골 최초의 여고생이 되어 귀향할 때는 온 동네사람들이 다 나와서 나를 봐 주었으면 하는 욕망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⁴⁰⁾ …

물론 이같은 의식의 변화는 이미 박적골에서 주입된 양반의식과 관계된다. 흔히 송도로 불리던 개성에서 남서쪽으로 이십 리가량 떨어진 벽촌의 박씨와 홍씨들의 집성촌 동리에서 전근대적 가치와 새로운 가치체계가 대립하던 시절에 전근대적 가치로 무장된 몰락한 대가족을 지키려는 양반집 장손 집안의 1남 1녀 가운데 막내로 출생한 작가가 유년기에 혼육된 교육효과의 일단이 어머니와의 심정적 공모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로의 이주 이후에도 여전히 양반집 며느리로서 상것들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던 어머니의 영향 역시 무시할 수 없었으리라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양반의식은 작가의 작품 속에서 작가 스스로에 의해 철저히 비난되기는 하지만 미루어 짐작하건대 성년 이전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으리라 할 수 있다.

... “우리 집안은 겨우 까막눈이나 면한 시골 선비 집안이었다. 부끄럽지만 할아버지도 양반 타령만 유별났지 민족적 자부심이나 역사의식이 있는 분은 못 되었다. 할아버지의 양반 노릇은 오직 우리보다 낮은 양반을 무시하는 것이었고, 양반으로서의 책임감이 있다면 자식들 혼사를 맺을 때 우리와 걸맞는 양반 중에서도 우리하고 같은 노론 집안하고만 맺어야 한다는 고집 정도였다. 남을 높이 보거나 우습게 볼 때 할아버지가 가장 잘 하시는 말씀도 다 속여도 빠다귀만은 못 속인다는 단정이었다. 이 정도의 알량한 양반 의식밖에 없었으니까 일본 관청이라도 관청에만 다니면 벼슬인 줄 알고, 장손이 장차 집안을 일으킬 만큼 출세하는 꿈에 부풀 수가 있었다.”⁴¹⁾ …

... “느이 작은 에미 고생도 얼마 안 남았어, 역성들 거 없다. 그리고 세상 잘못 만나면 여자들이 에미 그 정도는 고생하는 게다. 사지 멀쩡한 여자가 광주리 이는 게 뭐 어 때서? 근본있는 양반의 자손이 지게 지고, 거짓부렁이나 해서 입에 풀칠하는 수모하고 델까.”⁴²⁾ …

... “아아 저런 상것들하고 상종을 하며 살아야 하다니... 엄마는 툭하면 상것들이란 말을 잘 썼다. 늙은 부모에 어린 자식이 올망졸망 딸린 안집 남자가 첩을 얻어 들여서 본처와 한방에서 기거케 하는 걸 보고도 아아 상것들이다, 하면서 몸서리를 쳤다. 그럴 땐 안집한테 들어놓고 찢 찢 댄 때와는 단판으로 엄마는 느닷없이 기쁨이 있어졌다. 서울서 나를 데리고 시골집에 내려왔을 때도 엄마는 그랬었다.”⁴³⁾ …

... “같이 놀던 동무들을 만나도 그건 같지가 않았다. 엄마가 애써 만들어 붙인 서울 티도 동무들과의 사이를 서먹서먹하게 했지만 문제는 내 마음이었다. 나는 서울 생활 반 년 만에 벌써 내가 시골 아이들과는 격이 다른 것

38) 최영미(2005.5), [홍터와 무늬], 랜덤하우스 중앙, 55쪽
39) 박완서, <엄마의 말뚝 1>, 앞의 책, 174쪽

40) 박완서,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앞의 책, 78쪽
41)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앞의 책, 36-37쪽
42) 박완서,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앞의 책, 161쪽
43) 박완서, <엄마의 말뚝 1>, 앞의 책, 155쪽

처럼 느꼈고, 의식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려 했으니 그 애들 보기에 얼마나 눈꼴이 시었을까.”⁴⁴⁾...

지방에서 서울의 문밖으로 편입한 작가는 자신이 주변인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늘 자신이 떠나온 고향을 그리워하면서도 막상 고향에 갈 기회가 있을 때면 자신이 도회인으로서 고향(시골)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표출하는 데 주목하곤 한다. 이는 곧 서울의 근대성에 대한 도회 편입인들의 이중적 시각을 내보이는 동시에 당시 서울로 편입한 근대체험자들의 시각이 늘 양가적이었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대목이 된다. 따라서 서울의 문밖에서는 언제나 외부인이자 주변인으로 머물지만 고향으로 귀향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상의식이 발동하여 어머니와 공모하게 된 날조되고 가장된 문안의식을 도회의 고향에 대한 상대적 우월성으로 변모시키는 주체가 된다.

3. 자가주택의 소유와 도회인으로서의 편입 자각

박완서의 성장소설에 의하면 작가가 국민학교 5학년이 되던 1942년에 비로소 서울사람으로서 타인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그동안 주변인이자 경계인으로 살았던 도회편입자로서 자신보다 뒤늦게 도회지로 편입한 같은 반 아이가 새로운 도시환경에 적응하도록 도움을 주는 일이 담임선생에 의해 자신에게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소설 속의 화자는 급격하게 고향집에 대한 배격의식을 강화하는 동시에 도회생활의 편리와 위무를 만끽하는 행동을 취하게 된다.

... “오학년 때였는데 처음으로 친한 친구가 생겼다. 전 학생이었는데 선생님이 나하고 짝을 시켰다. 전학해 온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동안 마음이 순한 아이하고 짝을 시키는 게 선생님들의 공통된 버릇이었다. 나는 반에서 존재 없는 아이여서 아무 일에도 뽀힌 적이 없건만 그런 일엔 단골로 뽑혔다.”⁴⁵⁾...

이와 함께 현저동 산꼭대기에 셋집이 아닌 자가주택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서울로의 의식적, 형식적 편입을 완성하는 데 이것이 박완서의 작품에서 연작형식으로 드러나는 소설의 제목이 되는 ‘엄마의 말뚝’이며, 이는 곧 도회편입의 완성을 의미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문밖의식은 다소 희석되면서 비로소 도시생활에의 적응과 조화를 이루게 되고, 그 결과 방학이면 내려가곤 하던 고향집이 도회의 눈으로 판단되고, 전근대적인 고향집에 대한 불편의식이 상승하는 계기가 된다.

... “기어코 서울에도 말뚝을 박았구나. 비록 문 밖이긴 하지만... 비록 여섯 칸짜리 집이지만 없는 게 없었다. 안

방, 마루, 건넌방, 부엌, 아랫방, 대문간 이렇게 여섯 개의 방이 공평하게 한 간씩이었다. 마당도 있었다. 마당이 네모나지 않고 삼각형인 게 흠이었다. 엄마는 이런 마당을 ‘우리 괴불 마당’이란 애칭으로 불렀다. 세 집은 셋집처럼 대문 밖이 낭떠러지가 아니고 보통 골목인 대신 직삼각형 마당의 가장변이 긴 쪽이 남의 집 뒤쪽을 난 담인데 그 밑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축대였다.”⁴⁶⁾...

... “어머니의 성품으로 보아 핑기에 가까운 용단과 차마 견디기 힘든 곤욕을 치르고 서울에 최초로 장만한 내 집은 그래도 기와집이었다. 여섯 칸짜리 집에 방이 세 개나 되고도 부엌과 마루와 대문간을 갖추고 있었으니 이 모든 구색이 공평하게 한 간씩이었다. 어찌나 반지빠른 자투리땅에다 지은집인지 명색만 있는 마당은 삼각형이었고 축대가 높았다.”⁴⁷⁾...

... “방세도 들어오고 오빠가 월급도 많이 타 와 엄마는 샴바느질을 덜 했다. 오빠 몰래 꼭 엄마의 솜씨를 원하는 사람한테만 해주는 것 같았다. 오빠는 효성이 지극해서 엄마가 남의 바느질하는 것만 보면 슬픈 얼굴로 꼴을 냈다. 내 집에서 산다는 것과 월급을 타서 한 달을 설계하고 식구끼리 서로 화목한 것이 얼마나 좋다는 게 어런 마음에도 느껴졌다. 비록 현저동은 못 면했지만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도시 생활에 적응하고 조화를 이루기 시작한 시기였다.”⁴⁸⁾...

... “방학을 하기가 무섭게 시골에 내려가는 건 전과 다름없었다. 귀향을 앞두고는 가슴이 설레고 방학 내내 서울서 지낼 수밖에 없는 서울내기들을 참 안됐다고 여기는 것도 여전했다. 그러나 시골에 눌러 살려면 못 갈 것 같았다. 침침한 등잔불이 제일 갑갑했다. 개학해서 서울로 돌아올 때면 대낮 같은 전깃불이 반가워 고향의 싱그러움 풀 냄새를 맡을 때 못지않은 기쁨을 맛보았다.”⁴⁹⁾...

4. 도회편입의 완성의식에 따른 도시공간의 고향 대체

도회편입의 완성은 곧 자신의 고향이 도회로 대체되는 현상으로 이행된다. 6.25전쟁이 발발하고 의용군으로 나갔던 작가의 10살 위 오빠가 인민군 군관의 총격으로 부상을 입고 서울로 돌아와 있던 도중에 중공군의 전쟁개입으로 빚어진 1.4후퇴 때에 총격을 입은 오빠로 인해 피난을 갈 수 없게 되자 작가의 어머니는 자신이 최초 말뚝을 박았던 현저동 산꼭대기 집으로 피난을 서두른다.

이는 고향으로의 귀소의식이 발현된 것으로서 돌아갈 수 없는 개풍군 박적골의 고향을 의식적으로 대체한 장소가 서울편입 후 최초로 자가주택을 가졌던 현저동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도회인으로서의 완벽한 편입을 의미하는 동시에 남편의 고향이자 스스로 피붙이를 데리고 매년 방학이면 으레 찾

46) 박완서, <엄마의 말뚝 1>, [그 가을의 사흘 동안], 앞의 책, 169쪽

47)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앞의 책, 113쪽

48)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앞의 책, 116-117쪽

49)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앞의 책, 117쪽

44)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앞의 책, 99쪽

45)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앞의 책, 131쪽

던 고향이 완전하게 새로운 공간인 도시로 전환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도회편입자의 정주의식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박완서의 작품에 나타나는 도회로의 편입에 따른 고향의 대체의식은 다른 작가의 작품에서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대도시 주거공간 인식의 또 다른 보편적 단면이라 할 수 있다.

... “노도처럼 남으로 밀리는 피난행렬에 끼었으면서도 검문을 피하느라 도심을 몇 바퀴 배회한 데 지나지 않았고, 오빠는 검문이 있을 만한 곳을 더듬이처럼 예민한 감촉으로 예감하고 재빠르게 피하는 능력 빼고는 아무런 생각도 의지도 없는 폐인처럼 돼 있었다. 나는 이런 오빠가 짐스러운 나머지 혼자 도망칠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그때 어머니가 말했다. 애들아, 우리 현저동으로 가자꾸나. 어머니로부터 현저동 소리를 듣자, 나는 마치 오랜 방탕 끝에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탕아처럼 겸손하고 유순해졌다. 번들거리는 불안한 빛을 빼면 텅 빈 오빠의 눈에도 일순 기쁨 같은 게 어렸다. 그 천엽 속처럼 구질구질한 동네는 우리가 숨어 지내게 알맞을 거다. 어머니는 이제 마음이 놓이는지 편안한 목소리로 이렇게 덧붙였다. 천엽 속처럼 구질구질하다는 어머니의 표현이 경멸보다는 그리움으로 다가오고 있었다.”⁵⁰⁾...

... “저녁 무렵에 의사가 병실에 들러 한 시간을 있다가 갔습니다. 아버지의 의식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의사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어요. 자, 백에서 칠을 빼면 몇이지요? ...<중략>... 맥이 어디시죠? 아버진 눈을 껌벅이시더니 역촌동, 그렇습니다. 의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맞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촌동이라니? 그곳은 오빠네가 이 도시에 처음으로 집을 샀던 동네입니다. 그 동네 떠나온 지가 칠년인데.”⁵¹⁾...

5. 문안으로의 편입 완성과 중산층으로서의 의식 보유

자전적 소설 속의 인물인 작가의 어머니가 갖은 수를 다 내어 셋집일망정 최초의 집을 장만하였던 현저동은 여전히 문밖이었고, 비록 내 집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문밖이었던 까닭에 절반의 성공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문밖 의식은 여전히 잔존하는 것으로서 최초로 현저동에 자신들의 집을 소유함으로써 말뚝을 박았다고 여겼던 작가의 어머니는 아직도 문안에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식에 집착하였고, 해방이 되던 해에 비로소 문안인 광화문의 신문로에 집을 마련하게 된다. 문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 “그날 밤 엄마는 이불 속에서 울면서 시골에다 편지를 썼다. 구구절절 셋방살이의 서러운 사정에 곁들여 시골서 조금만 보태주시면 금융조합에서 용자라도 좀 얻고 해서 서울서 집값이 제일 싼 이 동네에다 집을 살 엄두를

한번 내보겠다는 사연이었다. 그건 엄마의 계획엔 들어있지 않은 엄마 나름으론 대단한 양보였다. 엄마는 맨주먹으로 오빠를 공부시켜 성공을 거두어야 했고 내 집은 어떡하든 정작 서울인 문 안에 사야 했다.”⁵²⁾...

... “그러나 대부분의 적산가옥은 약삭빠른 사람들이 다 차지해서 그로 인해 서울의 집값이 가장 쌀 때였다. 우리는 개성 집 판 돈에다 작은 숙부가 보태준 돈을 합해 당시에도 서울서 가장 집값이 비싸다는 광화문 근처 신문로에다 집을 샀다. 엄마가 그렇게도 소원하던 문 안 사람이 된 것이었다. 지대만 좋을 뿐 아니라 새로 지은 반들반들하고도 반듯한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었다. 그때로서는 드물게 목욕탕까지 있는 집이었다.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집다운 집을 장만한 것은 올케 언니와의 행복한 생활을 아직도 단념 못 하는 오빠의 세신량다운 허용도 있었을 것 같다. 엄마는 열심히 신방을 꾸미고 며느리 올 날을 기다리고 나는 숙명여고에 복학을 했다.”⁵³⁾...

신문로에 집을 구입한 이후에는 작가 스스로가 밝혔듯이 도시중산층 의식을 갖게 된다. 그 후에는 돈암동으로 이주하고 사회주의 사상에 심취하였던 오빠와 그의 친구들이 집을 드나들 때마다 지근거리의 동네로 거의 일년에 한 번꼴로 이사를 다니게 되지만 그 이전의 경우와 같이 문안 의식이나 양반의식과 같은 ‘중심지향 의식’이나 ‘중앙진입 의식’은 희석된다. 이는 공간환경의 축적된 경험이 빚어낸 일종의 공간지각 범위확대로 이해할 수도 있고 서울의 행정구역 확장이나 지리적 영역의 확대가 과거의 편파적 구분의식을 희석시킨 때문이기도 하다⁵⁴⁾.

6. 문안과 문밖의 이분법적 시각의 변용

문안의식과 문밖의식의 실제적 대립의식이 어떻게 변용되는가는 자전소설이나 성장소설로는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분법적 시각의 변용과정과 의식은 작가의 실제 이주 과정과 작품발표 시기를 중첩하면서 서술함으로써 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이혼녀이자 독신인 중학교 교사 차문경과 아내와 사별한 그녀의 대학 동창인 동갑내기 남성 김혁주 사이에서 벌어지는 남녀의 갈등 혹은 가부장제 문화속의 여성과 육아의 문제, 재혼의 문제, 나아가 혼외정사의 문제와 호적제도 등등의 사회발언을 담아 1989년에 『여성신문』을 통해 연재된 소설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와 연작소설의 형식을 빌어 욕망하는 도회인의 부유현상을 날카롭게 그린 <서울사람들>은 서울을 문안과 문밖으로 구분하던 시각이 다른 용어로 대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50) 박완서(1987.5), <엄마의 말뚝 2>, [그 가을의 사흘 동안], 나남출판, 20쇄, 216쪽
 51) 신경숙(2005.8), <감자 먹는 사람들>, [감자 먹는 사람들], 창비, 개정판 1쇄, 43-44쪽

52) 박완서, <엄마의 말뚝 1>, 앞의 책, 163쪽
 53)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앞의 책, 148쪽
 54) 해방 이후 서울은 현재의 명칭인 ‘서울’로 공식 명명되었고, 1948년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이듬해에는 서울특별시로 명칭이 바뀌고 성북구가 증설되는 등 행정구역이 크게 확장되었다. 또한 1949년에는 서울의 행정구역이 해방 당시에 비해 거의 두 배가 늘어났다.

있다. 즉, 이들 작품에서는 서울의 도시공간 확장으로 인하여 문안과 문밖의 대립적 의식이 강남과 강북 혹은 부자 동네와 후진 동네 혹은 8학군과 나머지 등의 구분짓대로 전이되었음을 분명하게 시사하고 있다.

... “혼자서 외아들 키우는 주제에 그렇게 감정적으로 굴면 어떡해. 전세 쥐도 얼마든지 딴 동네로 갈 수 있잖아. 두고 봐. 그 정떨어진 집이 해마다 황금알을 낳을 테니. 전셋값은 해마다 오르거든. 딴 동네 집값이나 전셋값의 상승률은 8학군보다 훨씬 둔하니까 잘하면 몇 번 올려 받은 전셋값을 보태서 집을 또 한 채 장만할 수 있을 거야. 단 그동안 차선생이 장사를 하든 취직을 하든 해서 생활비를 벌 수만 있다면 말야.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덧들이거나 놓치지만 않으면 차선생도 부르주아 되는 건 시간 문제일 테니 두고 봐.”⁵⁵⁾...

... “몸은 안 옮기면, 그럼 1학년짜리가 이 동네서 그 동네까지 매일 한강을 건너서 통학을 할 수 있단 소리예요. 뭐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작작 하시우. 화부터 내지 말고 생각해 봐요. 우리집은 8학군에 있고, 국민학교도 부자 동네라 시설 좋고 잘 가르치기로 소문난 학교에 보낼 수 있소. 딸들은 다 그런 학교에 보내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런 후진 동네에 있는 학교에 보내려니 어찌 걸리지가 않겠소. 나보다는 어머니하고 집사람이 더 극성이지만 말요. 여자들의 교육열은 알아주는 거 아뇨. 그래서 당신도 기꺼이 협조할 줄 알았던 거요. 주민등록만 옮기자는 게지 아이의 몸까지 옮기자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과민하게 반응할 게 뭐 있소? 당신은 마치 우리쪽은 사람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모양인데 애비도 사람이요. 왜 그 생각을 안했겠소. 회사 차말고 집사람 차가 따로 있는데 이번 기회에 운전수를 고용해서 아이의 수송을 전담시키고 나머지 시간만 집에서 쓰기로 했소. 그래도 안 되겠소? 네. 안되고 말고요. 그리고 그런 눈으로 날 바라보지 말아요. 당신 눈엔 내가 자식의 교육문제는 안중에도 없는 한심한 애미로 보이는 모양이지만 내 눈엔 당신네들이 그렇게 보여요. 알아들었어요? 내 말뜻.”⁵⁶⁾...

... “아직도 연탄을 때며 사는 사람들이 서울 장안에 남아있다니. 혜진은 그 연탄을 때는 동네를 그녀가 살던 동네로서가 아니라 다만 딱하도록 후진 동네로서 바라보면서 경멸 섞인 연민을 느꼈다. 혜진의 아파트는 동부 서울 대단위 아파트단지 한가운데에 있었다. 신경 써야 할 이웃은 아래위층밖에 없었고, 앞으로도 뒤로도 바라보이는 건 그녀의 집과 똑같은 규모로 규격화된 이웃들뿐이었다.”⁵⁷⁾...

문안과 문밖의 대립적 공간인식이 약화되고 그것이 강남과 강북 혹은 부자 동네와 후진 동네로 전이되는 내용의 작품이 주로 발표되던 시기는 작가 박완서가 서울

동부지역의 아파트로 실제 이주한 1981년 이후이다. 소위 산업화과정의 현실 세대의 모순과 중산층의 허위 의식이나 속물주의 근성 등이 작가의 작품을 통해 강하게 비판되던 시절이기도 하다. 다만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적인 묘사나 작가의 시선은 자신의 기억과 체험에 의해 그려진 유년기의 성장소설이나 자전적 소설에서 보았던 자신의 할아버지와 어머니의 훈육기준이었던 공간적 편파의식과 사회적 층하의식이 여전히 중요한 판단의 잣대로 기능하지만 그 내용과 이분법의 대상이 강남과 강북 혹은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를 전이되었다는 것이다.

... “새로 생긴 단지인 그녀의 동네는 질서정연하고 정결했다. 단지 내에서 만나는 그만그만한 나이 또래의 젊은 부인들은 또 얼마나 정다운가. 그 여자들이야말로 혜진과 공돈의 비밀을 같이 하는 미덥고 알뜰한 동업자들이었다. 만일 아파트의 으뜸세가 조금이라도 둔화되면 반상회에서 고운 목청을 높여 단결을 다짐함으로써 더욱 높은 수익을 보장할 수도 있었다. 녹지대가 알맞게 배치된 단지 내의 공기는 신선하고 감미로웠다. 혜진은 느긋하게 심호흡을 하며 개업을 내일 모레로 앞둔 쇼핑센터를 쳐다보았다. 거대한 건물이, 안에 구비된 상품선전이 적힌 오색의 현수막에 뒤덮여 필력이고 있었다. 런던포크, 워크엔드, 논노, 니나리찌, 샤프테, 지방시, 신데렐라, 버킹검, 맨하탄, 벨라, 뽀랭땅, 모아, 그린에이지, 나이키, 프로스펙스, 월드컵..... 현수막이 바람에 필력일 때마다 거대한 건물이 유연한 춤을 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⁵⁸⁾...

... “좁은 오르막길을 꼬불꼬불 휘돌면서 혜진은 집집마다 대문 앞에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쓰레기통에 진저리를 쳤다. 쓰레기통마다 연탄재가 넘치다 못해 양쪽으로 넘친 연탄재가 길을 막고 있는 골목도 있었다. 싱그럽고 훈훈해야 할 봄바람 속에도 회색 및 연탄먼지가 난분분했고, 굴뚝마다 내뿜는 독한 가스로 목구멍이 아리도록 매개했다. 길에서 말다툼을 하던 아이들이 뭐가 틀렸는지 서로 상스런 욕을 퍼붓다가 별안간 연탄재를 던지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연탄재 던지기놀이에 금방 도취해서 욕 대신 희희낙락 킬킬대기 시작했다. 연탄재는 아이들 머리통에도 맞고 가슴팍에도 맞고 남의 집 유리창에도 맞았다. 혜진은 연탄재 던지기를 마치 눈싸움처럼 즐기는 아이들이 꿈쩍해서 오던 길을 되돌아 다른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골목이 소삼한 동네가 흔히 그렇듯이 어디로 가나 결국은 통하게 돼 있었다.”⁵⁹⁾...

특히, 아파트의 보편적 공급확대를 거치는 시기를 통해 과거 서울의 중류가정이 희구하였던 주거공간이 문밖에서 문안으로 진입하는 지리적 이동으로 상징되었다면 이 시기를 거치면서부터는 소유의 형태와 규모가 서울의 중산층을 규정하는 잣대가 되고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이는 서울의 주거공간 확장과 중산층 중심의 아파트 선호경향과 규모의 문제가 서로 복합화하면서 다양한 양상

55) 박완서(2004.2),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박완서 소설전집 15], 세계사, 2판 8쇄, 105쪽

56) 박완서,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앞의 책, 145-146쪽

57) 박완서(2004.2), <서울사람들>, 《박완서 소설전집 15》, 세계사, 2판 8쇄, 268쪽

58) 박완서, <서울사람들>, 앞의 책, 276쪽

59) 박완서, <서울사람들>, 앞의 책, 267쪽

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 “보통으로 사는 집이 좋을 거예요. 단독주택이라면 대지 50평 미만에 건평이 25평 정도, 마당이 약간 있고 화분하고 강아지도 있었으면 좋겠죠. 아파트라면 투기로 너무 이름난 동네 말고 보통 동네의 30평 남짓한 아파트면 알맞을 것 같잖아요? 또마를 모든 어린이가 위화감 안 느끼고 친구로 맞아들이게 하려면 우선 또마에게 전형적인 보통 사람의 삶을 줘야 해요. 나는 그러마고 약속하고 부모한테 31평짜리 아파트를 선물 받은 팔자 좋은 친구네 집으로 보통 사람의 규격을 견학갔다. 나는 또마가 그런데 사는 건 상관없다고 쳐도 또마의 모든 친구가 다 그런데 사는 건 싫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사는 건 생활이 아니라 틀이었다. 내가 창조한 또마는 틀에 박힐 아이가 아니었다. 또마를 틀에 가둔다는 건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나는 또마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그 아이를 풍선에다 태운 것이었다. 이 땅에서 또마는 빈민굴에서 살아서도 안 되고 빈민굴 아이와 놀아서도 안 되지만 로마나 파리에선 빈민굴에 기웃대든 그곳 아이와 어울리든 자유였다.”⁶⁰⁾...

7. 도회와 전원의 이분법적 시선

연작소설인 <서울사람들>에서 일찍 연애결혼을 한 언니 해진과 달리 좋은 자리에 중매를 서서 번듯한 집안과 시돈을 맺으려는 부모의 뜻과 연애와 결혼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막내딸의 의중이 맞아떨어져 일어나는 속물들의 해프닝을 통해 주거공간의 이분법적 시각은 도회와 전원의 구분으로 확장된다. 이는 아파트 중심의 획일적 도시주거에 대한 권태가 새로운 차별적 주거환경에 대한 선호로 이어지며 도시와는 다른 조건의 전원으로 공간적 확장을 꾀하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서울의 주거공간 소유의식과 점유의 경로가 외연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상징한다 할 수 있다.

... “내 표현이 좀 우습지? 아무튼 이 나라에서 못 보던 거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니. 나는 이 나라를 크게 도시와 시골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여러모로 뚜렷하게 대립되니까. 도시는 소비적이고 시골은 생산적이고, 한쪽은 편리하고 한쪽은 불편하고, 한쪽은 인공적이고 한쪽은 자연적이고....., 상반되는 건 그밖에도 얼마든지 있지. 그런데 오늘 본 농장은 그 어느 쪽에도 속할 수가 없지 않니. 도시적인 온갖 편의시설을 갖춘 자연, 비생산적인 자연, 빌딩 속처럼 구석구석 청결의 손길이 미친 자연, 조금도 자연스럽지 않은 자연이 그렇게 광활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니..... 언니는 노후의 농장에 대한 꿈이 초라해지지 않아? 모르겠어. 그런 것도 같아. 그럼 아마 오늘의 내 기분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내 지도에 도시와 시골 외에 농장지대가 하나 더 생겼다 해서 그게 어쩔다는 거야?”⁶¹⁾...

... “그들은 오래간만에 즐거웠다. 친구의 농장에 닿기 전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오후부터 폭설로 변했다. 동구 밖 거목들이 동양화 속의 원경처럼 꼭 필요한 고결한 몇 가닥의 선으로 단순화되면서 아득하고도 부드럽게 흐려 보였다. 어린 과수(果樹)들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간간이 잔가지가 부러지는 고리가 푹푹 비명처럼 들렸다. 벽난로 속에서 청솔가지가 싱그러운 념새를 풍기며 활활 타올라 방안을 훈훈하게도 정겹기도 했다. 발 유리문 밖 뜨락 앵두나무엔 눈꽃이 탐스럽게 만개해서 황홀했다. 선경(仙境)이었다. 비록 제 차가 있다고는 하지만 친구 남편이 아침저녁 서울 한복판에 있는 그의 사무실까지 출퇴근하기에 불편이 없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그런 선경이 있을 줄이야. 지난 봄 뜨락에 앵두꽃이 만개했을 때도 나는 친구의 농장에 초대된 적이 있었다. 그때는 단 친구들도 여럿 함께여서 뜨락과 과수원 길엔 그들이 타고 온 승용차가 즐비했고 만발한 복사꽃 사이론 따라온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가득했었다. 그 때 이 농장은 이같은 도시의 여파(餘波)와 잘 어울려 마치 도시근교의 관광농장처럼 뜬뜬 모습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때의 농장과 지금의 농장을 마치 별개의 두 개의 농장처럼 각각 다른 느낌으로 좋아하고 있었다. 나에겐 그 둘이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거리감도 물론 달랐다. 나는 마치 난리를 피해 천신만고 끝에 계룡산을 찾아든 정감록의 신도처럼 평화롭고 달콤하게 피곤했다.”⁶²⁾...

특히, 1974년에 발표한 <닭은 방들>을 보면, 금요일이면 활기를 띠는 이웃집 철이 엄마를 따라 복권을 사보지만 자신의 것은 당첨될 리 없으리라 생각하면서도 철이 엄마의 그것은 당첨될 것처럼 생각하는 인물을 통해 끊임없는 주거공간의 확대와 전원에 위치한 단독주택에 대한 희구의식을 버리지 않는다. 이는 아파트 중심의 도시 주거공간에 내재된 권태를 해소하는 대안이자 신분상승의 수단으로서 전원주택이 상정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 “그 여자는 당첨금 8백만 원을 타면 곧 이곳에서 떨어진 공기 좋고 아름다운 전원도시의 언덕 위에 땅을 사고 말거다, 그리곤 집을 설계하겠지. 다락방이 있는 뽕죽한 지붕을 가진 오밀조밀한 집을 짓겠지. 그런 집은 내 집이어야 하는 건데. 그 집 철이와 난이는 다락방 서재에서 지붕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프랑다스의 개》를 읽을 수 있겠구나. 내 아이들이 그래야 하는 건데. 내 아이들에게 내가 그렇게 해주고 싶었던 걸. 그 여자는 모조리 훔쳐다가 제 아이들에게 해주겠구나. 마당에는 잔디를 깔고, 장미를 심고, 라일락도 심고, 그리고 철이와 난이의 발도 따로 만들겠지. 그래서 완두콩도 심고, 옥수수도 심고, 이것은 쌍떡잎식물, 저것은 외떡잎식물 하며 씨앗에서 싹이 트는 신비한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며 자기야말로 훌륭한 엄마인 양 자족의 미소를 짓겠지. 그런 짓은 내가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여자가 모조리 훔쳐다가 마치 제 것처럼 써 먹겠지. 나는 너무 분해서 숨이 찼다. 이런 고

60) 박완서(1987.5), <어느 이야기기꾼의 수렁>, [그 가을의 사흘 동안], 나남출판, 20쇄, 63쪽

61) 박완서, <서울사람들>, [박완서 소설전집 15], 앞의 책, 336-337쪽

62) 박완서, <엄마의 말뚝 2>, [그 가을의 사흘 동안], 앞의 책, 185쪽

통은 철이 엄마 쪽에서도 마찬가지로였다가 보다.”⁶³⁾...

그리고 작가 박완서는 자신의 작품에 나타난 이런 행태를 좇아 전원주택의 구입을 현실적인 실천으로 옮긴다. 즉, 작가는 결혼 후 세 번째라고 언급한 서울에서 구리로의 이주 결행을 통해 스스로 줄행랑이라고 낮춰 부르던 아파트를 떠나 땅집으로 브로던 구리시 아천동 아치울 마을의 단독주택으로 이주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러한 이주 경험을 사실 그대로 옮긴 수필 등의 작품을 통해 도회지내 편입과 공간확장 그리고 편리성의 추구와 규모의 확대를 이룬 공간소유와 사용의 단계가 전원의 농장지대를 이동하였음을 밝히게 된다.⁶⁴⁾

... “남편은 토박이 서울사람이다. 서울에서도 대대로 종로통에서 장사를 하던 집안 출신이라 그런지 시골이나 촌스러움에 대한 나의 향수를 이해하지 못했다. 따라서 발 전성이라고는 없는 동네에다 부동산을 사고 싶어하는 나를 한심하게 여겼다. 그러나 나는 급한 마음에 우선 내 마음대로 했고, 아이들을 다 결혼시키고 난 뒤 둘이서만 거기 가서 조용하고 소박한 노후를 즐기자고 그를 피는 건 그 다음 문제였다.”⁶⁵⁾...

... “이사 오고 며칠 있다가 주민등록증을 옮기면서 비로소 경기도 사람이 된 걸 실감했다. 여덟 살에 경기도 촌구석에서 서울로 왔으니 60년 만이었다. 오직 자식들을 서울에다 말뚝박게 하였던 일념 하나로 당시의 관습이나 남의 이목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할 수 있었던 못 말리는 우리 엄마의 생각이 났다. 그때 나에게 스며든 엄마의 단단한 손힘이 지금도 어딘가에 남아 있는 것처럼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 사람이 됐다는 게 문득 섭섭하게 느껴졌다. 너무 쉽게 총동적으로 결정한 게 아닐까 하는 후회의 예감에 내심 당황했다. 도시의 좋은 점, 백화점 버스, 철따라 바뀌는 녹지대의 서양화초와 전철로 반시간이면 갈 수 있는 인사동거리와 교보문고가 그렇게 하찮았던 것들이었을까? 아니지, 그건 아니다 싶은 대책 없는 상실감이 온종일 마음을 어지럽혔다. 그러나 아침에 눈뜰 때마다 지척에 바라다 보이는, 내 어릴 적 고향 동네와 너무도 닮은 야트막한 밤나무 숲은 고달픈 타향살이에서 마침내 돌아와 폭 자고 난 것처럼 깊은 평화와 안도감을 준다.”⁶⁶⁾...

V. 결론 및 연구의 의의

1. 결 론

지금까지 작가 박완서의 문학작품 가운데 자전적 성장소설과 구체적인 사실(facts)에 바탕을 소설이나 수필 등

의 작품을 중심으로 개인의 이동경로와 공간소비에 나타난 서울 주거공간의 상징적 의미를 이분법적 시각이라는 개념으로 살펴보았다. 도시공간 혹은 주거환경의 이분법적 시각은 근대의 충격에 대한 도시민의 도시공간에 대한 인식이 양가적이었다는 점을 수용하면서 그 의미를 변용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으로서 주거학 연구에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시각과 입장에서 박완서의 문학작품을 통해 본 서울 주거공간의 이분법적 시각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하여 나뉠 수 있다.

서울의 지리적, 행정적 도시공간 확장과정을 박완서의 작품을 통해 나타난 중산층의 주거공간 이동과 인식에 연동하여 바라본다면 해방 이후 서울로 편입하거나 서울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중산층 회귀집단은 문안으로의 편입을 기도하였으며, 이는 자연히 ‘문안의식과 문밖의식’이라는 이분법적 공간환경의 시각과 인식을 생성하였으며, 이는 근대경험이 가져온 양가적(兩價的) 태도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근대도시의 양가적 시선이 산업사회의 거대도시에 편입되는 도회인에게는 이분법적 시선으로 전이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양가성에서 비롯된 서울 주거공간의 이분법적 시각은 ‘문안의식과 문밖의식’으로 이행되며 서울의 도시공간 확대와 주택부족 심화 등에 따른 주거공간의 확장, 이에 따른 주택공급의 확대와 소유욕구의 응집과정을 거쳐 주택소유를 통한 도회인으로서의 완전한 편입의식을 추동한다. 이 과정을 통해 도회로의 완전한 편입을 확인한 도시거주자는 자신이 떠내온 고향을 대도시 서울에서 소유한 주택으로 대체한다.

자가주택의 입지가 비로소 문안이 될 때 이는 중산층의 편입 여부를 가능히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즉, 문안에 주택을 소유할 때 비로소 완벽한 도회인으로 편입되는 양상으로 인식이 확장되면서 그 달성여부가 물리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인 도시인으로서의 완전 편입 여부를 판단하는 기제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문안 주택의 소유를 통한 도회인으로서의 완전한 편입은 서울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고 제한 없는 주거공간의 이전기회를 누리게 하면서 서울의 행정권역 확장과 개발주의에 편승하여 그동안 도회인을 지배하였던 문안의식과 문밖의식은 다시 강남과 강북, 부자 동네와 후진 동네 등의 이분법적 의식으로 전이되고, 급기야는 소유한 주택의 규모와 그 주택 유형이 아파트인지 단독주택인지로 구분되는 복합화 되는 양상을 거친다. 특히, 1970년대 이후 중산층의 보편적 주택으로 아파트가 강고하게 자리매김하면서 편리성의 구체적 대상으로 자리하였던 아파트가 스스로 제공하는 편리성의 부정적 대가로 권태로움이 되돌아온다는 점에서 서울의 편리성이 보장되는 동시에 전원의 평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새로운 주거공간 육구의 대상으로 상정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그리고 이는 곧 도시와 전원(혹은 농장지대)의 새로운 이분법적 시각을 파생시킨다고 할 수 있다.

63) 박완서, <닭은 방들>, [그 가을의 사흘 동안], 앞의 책, 354쪽

64) 박완서(2004.10), {그 남자네 집}, 현대문학, 9-11쪽에는 아파트를 줄행랑으로, 마당을 가진 단독주택을 땅집으로 묘사함으로써 도시주택의 접지성(接地性)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65) 박완서(2003.5), <옛날>, [두부], 창작과 비평사, 초판 10쇄, 40-41쪽

66) 박완서, <옛날>, 앞의 책, 45-46쪽

2. 연구의 한계와 의의

소설작품을 연구의 대상으로 상정하여 분석결과를 제시한다는 것은 왜곡이나 과장 등 소설문학 고유의 특별한 서사기법이 배제되었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대부분의 문학작품들이 이 논문을 통해 언급한 것처럼 도시에 살면서 도시적 삶을 부정하는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자기모순 속에 잉태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⁶⁷⁾지만 적어도 박완서의 작품들은 일정 부분 서울 중산층의 도시공간 소비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⁶⁸⁾. 이미 일흔을 훨씬 넘긴 작가 박완서의 기억과 체험에 의한 글쓰기 내용은 상당부분 서울의 생활문화 변천사와 도시공간 확장과 주거공간의 확대 기획의 역사를 응변하는 내용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작가의 작품은 곧 서울이라는 장소의 이미지와 소비에 직접 연동되어 있으며, 한 개인의 삶을 추적하는 과정에 대한 기록문화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딱히 박완서의 작품이 아니더라도 지역문학 혹은 지방문학으로 분류되는 다양한 층위의 문학작품을 통해 해당지역의 당대 지역연구 혹은 지방문화와 공간환경 연구의 관련성을 시간-공간의 차원에서 탐

색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공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제간 학문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한 시론으로서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가톨릭대학교 한국근현대연구팀(2005.6), 학술심포지움-근대 이후의 삶과 주거변화 심포지움 논문집
2. 강수미 외(2003.1), 서울생활의 발견, 현실문화연구
3. 김태준 편저(2005.6), 문학지리·한국인의 심상공간, 논형
4. 김현주(2005.9), 대중소설의 문화론적 접근, 한국학술정보(주)
5. 이동하(1999.8), 한국문학 속의 도시와 이데올로기, 태학사
6. 서정철(1998), 기호에서 텍스트로-언어학과 문학기호학의 만남, 민음사
7. 이정희(2003.11), 오정희·박완서 소설의 두 가지 풍경 ; 한국소설에 나타난 근대와 여성, 청동거울
8. 차종천, 유흥준, 이종환(2004.1), 서울시 계층별 주거지역 분포의 역사적 변천, 백산서당
9. 한기(한형구, 2005.9), 구텐베르크 수사들-한 기 문학평론집, 역락비평신서 3, 도서출판 역락

(接受: 2005. 11. 15)

67) 한기(한형구), 앞의 책, 189쪽
 68) 이같은 작가들의 모순적 태도 등에 대한 문단의 의식과 이슈 등에 대해서는 이동하(1999.8), 한국문학 속의 도시와 이데올로기, 태학사 참조.

